

5

오래된 역사, 소중한 가치, 대구·경북의 문화재



【5장을 열며】

대구와 경북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다. 저마다 소중한 문화재들이다. 절, 서원 같은 오래된 건물을 비롯하여 탑, 불상, 토기, 그림, 책 등 대구와 경북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들과 이것들이 가진 역사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세계유산, 국보, 보물로 지정된 대구의 문화재
2. 고인돌에서 농악까지, 다양한 대구의 문화재
3. 전시장에 보물이 가득! 경북의 박물관

1

세계유산, 국보, 보물로 지정된 대구의 문화재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대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대한민국의 국보와 보물 등의 문화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자. 또 이들 문화재가 가진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전시실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이 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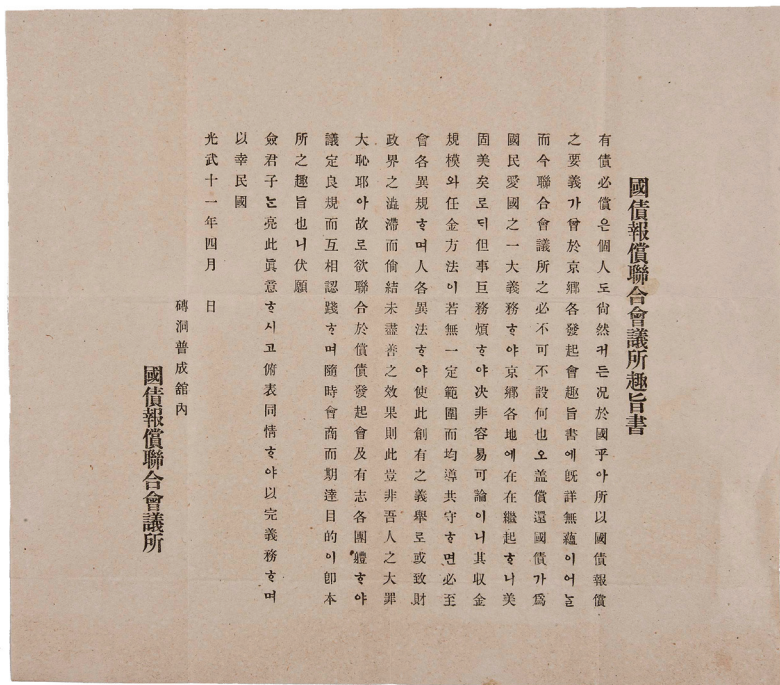
대구에는 2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다. 하나는 한국의 서원 9개에 포함되어 있는 도동서원이다. 또 하나는 세계기록유산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다. 세계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서적, 문서, 편지 같은 역사 기록을 세계유산으로 정하는 것인데, 2017년 유네스코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처음 일어난 애국운동이었다. 1907년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빌린 국채(나랏빚)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대한제국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일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웠다. 이대로 가면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07년 2월 대구에 있는 출판사인 광문사를 경영하던 김광제, 서상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국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서상돈이 이런 제안을 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국채를 갚아야 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합니다. 단연(담배를 끊는 것)해서 모은 돈으로 국채 갚는 운동을 벌여 봅시다.”

이들은 1907년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되는 것으로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인데, 나랏돈으로는 해결할 도리가 없으므로 2000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이를 갚아 국가의 위기를 구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실었다. 이들은 동시에 대구에서 담배 끊는 모임인 단연회를 설립하여 모금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를 밝힌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취지서

국채보상운동은 삼시간에 전국으로 전파되었다. 서울에선 국채보상기성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곧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했다. 상인, 노동자, 농민, 부녀자, 군인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자 당황한 일본은 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을 이끌던 대한매일신보사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1908년 일본은 이 신문사 경영자가 모금액 가운데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짓 죄를 만들어 구속하였다. 신문사 경영자는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 사건이 있은 후 국채보상운동 열기는 가라앉고 말았다.

비록 바라던 목표를 다 이루진 못했지만, 국채보상운동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빛을 갚기 위해 벌인 자랑스러운 애국운동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대구는 이 위대한 운동의 첫걸음을 내디딘 명예로운 도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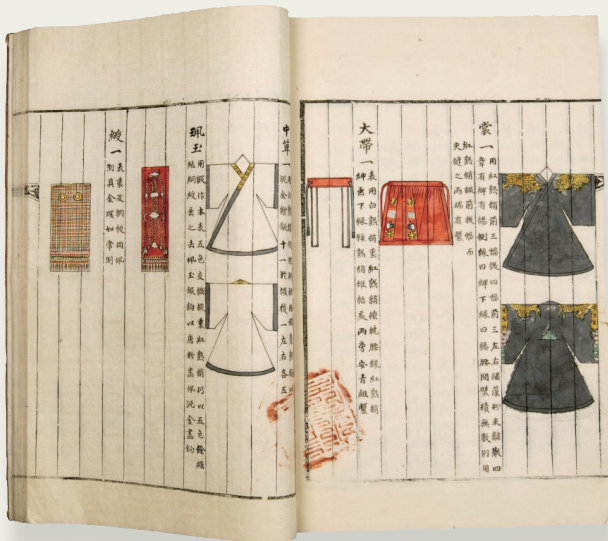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언문, 회의록 등 많은 기록을 남겼다. 유네스코는 국채보상운동과 이 운동의 기록물들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려고 애쓴 세계적 모범 사례라고 판단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대구 지식플러스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한 대구 여성들

국채보상운동을 처음 제안한 것은 남성들이었지만, 여성들도 적극 동참하였다. 1907년 2월 23일 대구 남일동에선 부인 7명이 주도하여 국채보상운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패물폐지부인회를 만들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이 만든 모금 조직이었다. 기금 모임에 참여한 여성들은 결혼 때 마련한 보석 등의 패물을 기부하였다. 대구 패물폐지부인회 활동이 알려진 후 다른 도시에서도 여성들이 만든 모금 조직이 여럿 만들어졌다.



정조 임금의 장례 절차를 기록한 정조국장도감의궤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의 4대 임금 세종이 1443년 창제하고 1446년 반포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

조선왕조실록

조선 제1대 왕 태조로부터 제25대 왕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왕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역사책.

직지심체요절

고려시대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로 만든 책. 여러 경전과 법문에 실린 내용이운데 좋은 구절만 뽑아 편집한 불교 서적이다.

승정원일기

승정원은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실 역할을 한 관청이다.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에서 처리한 국정 기록을 총 3,243책으로 남긴 것이다.

조선왕조지궤

조선시대에 결혼식, 장례식, 연회, 사신 영접 등 나라의 큰 행사와 건축물, 왕릉의 건축 등을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 경판

경상남도 함천에 있는 해인사의 고려 대장경판 및 그 이후에 만든 불교 경판이다. 현재 해인사는 8만 7000여 장의 경판을 보유하고 있다.

동의보감

1610년 허준이 집필하였고, 1613년 왕실 의료기관에서 간행한 백과사전식 의학책이다.

일성록

1760년에서 1910년까지 151년 동안 왕이 한 일을 매일 일기체로 정리한 책.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시민들이 일으킨 민주화운동으로,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정부·전남도청·광주시청·광주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 민주화운동 자료, 국회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교 책판 중 하나인 낙음선생문집 황강연조도 목판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17일까지 7년간의 생활을 기록한 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1970년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대통령의 연설문과 결재문서, 행정부처의 서류,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 사례 원고와 편지, 새마을교재, 관련 사진과 영상 등 2만 2000여 건의 자료들이다. UN은 새마을운동을 농촌 개발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유교 책판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나무에 새긴 판각으로, 현재 718종 64,226장이 있다.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1983년 KBS에서 한국전쟁 등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의 상봉을 돕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산가족이 그리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당시의 생방송 녹화 원본 테이프, 담당 PD 업무수첩, 이산가족들의 신청서, 사진 등의 기록물이다.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조선시대 왕과 왕비, 세자 등을 책봉하거나 시호 등을 수여할 때 만든 의례용 도장과 책이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통신사에 관한 자료를 총칭하는 것으로 외교기록, 여정기록, 문화교류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사는 조선 정부가 일본에 보낸 사신의 호칭으로, 통신사들은 일본 출장길에 많은 기록을 남겼다.



현풍 석빙고

대구에는 어떤 국보,
보물 문화재가 있을까?

문화재는 종류가 다양하다. 나라에서 정한 문화재에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가 있다. 시나 도 같은 지자체가 정한 문화재에는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있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국립대구박물관은 3개의 국보를 소장하고 있다. 국보 제182호, 183호, 184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금동불상들이다. 이 3개의 국보는 경상북도 구미 지역의 같은 장소에서 출토되었다.

대구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국보로 지정된 것도 있다. 대구 비산동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의 칼과 칼집 등의 유물이다. 각각 국보 제137-1호, 국보 제137-2호로 지정된 이 문화재는 현재 서울의 국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대구에는 나라에서 지정한 보물들이 꽤 많이 있다. 대구의 7개 구 중에서 국가 지정 보물이 많이 있는 곳은 달서구와 동구이다. 이 중 동구에 문화재가 많은 이유는 그곳에 팔공산이 있고 팔공산 곳곳에 신라시대에 세워진 오래된 절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에 있는 문화재 중에선 특이한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석빙고(보물 제673호)이다. 석빙고는 얼음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창고인데, 현풍의 석빙고는 조선시대인 173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대구 역사를 연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 하나가 『대구읍지』이다. 조선시대 후기 대구의 역사와 모습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5호인 이 책은 대구 시민들에게는 국보나 다름없는 소중한 것이다.



1946년 임창순이라는 학자가 대구 시내를 걷다가 길가에 내놓은 길이 1m, 폭 70cm의 돌을 발견했다. 돌에는 한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한문 실력이 뛰어났던 임창순은 그 돌이 신라시대 것임을 알아냈다. 그는 돌이 놓여 있는 집의 주인을 설득하여 그것을 대학으로 가져와 표면에 새겨진 글자를 전부 해석하였다.

비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글씨를 새긴 것으로, 글자는 크기와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글씨의 줄도 똑바르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고아한 맛이 있었다. 그것은 삼국시대인 6세기 중엽 대구에서 저수지를 만든 과정을 밝힌 비석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때 학자 임창순은 잠시 대구를 떠나야 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와 보니 학교에 비석이 보이지 않았다. 학교 곳곳을 뒤져 교내 수영장 부근에 묻혀 있는 비석을 찾아냈다.

왜 비석이 사라진 것일까? 한국전쟁 때 이 학교에 미군이 잠시 주둔하였는데, 이 비석의 가치를 몰라보고 방치한 때문이었다.

비석은 신라의 국방정책 및 농업정책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기에 196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비석의 정식 명칭은 '대구 무술명 오작비'이다. 보물 제516호로, 경북대학교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다.

2

고인돌에서 농악까지, 다양한 대구의 문화재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국보, 보물 이외에도 대구에는 소중한 문화재들이 많다. 선사시대 유물부터 우리 전통 농악과 춤 같은 무형문화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구 신천의 공룡 발자국 화석 안내판

공룡 발자국, 고인돌 ...
선사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재들

신천에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

1994년 9월 26일 아침, 어느 대구 시민이 신천둔치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신천은 군데군데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달리기를 하던 시민이 속도를 늦추고 신천을 바라보다가 움푹 파인 구덩이가 줄지어 있는 걸 발견했다.

‘저것은 혹시 공룡 발자국?’

이렇게 생각한 시민은 곧 이 사실을 알렸다. 이튿날 소식을 듣고 고생물학자가 신천에 와서 구덩이들을 꼼꼼하게 살핀 후 말했다.

“이것은 백악기 시절의 공룡 발자국이 분명합니다.”

대구 최초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는 순간이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은 동신교를 기준으로 수성교 방향 약 300m 지점이었다. 그 이후 대구에선 와룡산 지역, 노곡교 건너 고속도로변, 동구 지묘동 등 여러 곳에서 화석이 발견되었다.

약 2만 년 전 최초의 대구 주민

대구에서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은 약 2만 년 전인 구석기시대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구석기시대에 대구에 사람이 살았던 증거는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대구 월성동 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인 쪼돌날(몸돌에서 떼어 낸 아주 작은



대구 동구 각산동 고인돌

돌 조각)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가 되면서 대구에 사는 사람은 늘어났다. 정착하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생겼다. 서변동(대구시 북구)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유물인 빗살무늬토기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유물이다. 토기 외에도 대구에선 많은 신석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었다.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 중엔 우리가 흔히 고인돌이라고 부르는 지석묘가 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지배층의 무덤으로 대구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이것들은 대구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수성구 사월동 지석묘군(대구광역시 기념물 제9호), 수성구 상동 지석묘군(기념물 제12호), 달성군 천내리 지석묘군(기념물 제13호), 달성군 냉천리 지석묘군(기념물 제14호) 같은 것이다. 또 대구시 동구 각산동에도 고인돌이 있다.



대구 신천변의 수달 조형물



대구 지식플러스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사는 신천

족제비과에 속하는 수달은 멸종위기종이어서 현재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어 있다. 2005년 대구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 신천에서 최초로 수달이 발견되었다. 수달 발견 소식은 곧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수달이 산다는 것은 신천 생태계가 깨끗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2019년 무인카메라 등을 이용한 관찰 결과에 따르면 24마리의 수달이 신천과 금호강 지역에서 관찰되었다.



삼국시대에 조성된 달성토성

땅 전체가 문화재!
대구의 역사와 함께해 온
달성토성



1915년 8월 15일
달성토성에 모인
독립운동가들

1915년 8월 15일 대한광복회라는 항일조직이 달성토성에서 결성되었다. 1913년 경상북도 풍기에서 조직된 광복단과 1915년 대구에서 조직된 조선국권회복단이 힘을 모아 만든 조직이었다. 대한광복회는 독립군 양성과 독립운동자금 모집, 친일세력 차단 등의 독립운동을 벌였다. 평안도, 함경도에 지부가 생겼을 만큼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1918년 일본에 발각되어 조직을 이끌던 박상진 등 여러 사람이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달성토성에서는 이 귀한 역사를 기념하고자 2018년부터 매년 대한광복회 결성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대구의 문화재는 모두가 소중하지만, 대구시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은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 지역이다. 흔히 달성공원이라고 부르지만, 역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달성토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토성은 흙으로 쌓은 성을 말한다.

달성토성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고대의 토성이다. 달성토성을 쌓은 때는 신라 첨해왕 15년(261)으로 추측된다. 달성토성은 국가 사적 제62호로 지정되어 있다. 삼국시대에 조성된 달성토성은 1601년 현재의 경상감영공원 자리에 경상감영이 들어서기 전까지 대구의 정치·군사·행정의 중심지였다. 임진왜란 때는 이곳에 잠시 경상감영이 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공간인 달성토성은 조선 말기에 시작된 일본의 침략으로 수난을 당했다.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본군이 동학군 진압을 구실로 조선에 들어왔고, 일본군 한 부대가 달성토성에 주둔했다. 급기야 1907년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달성토성은 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서울에 있는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심지어 일본은 1914년 달성토성 중심부에 신사(일본에서 나라의 신, 또는 신격화된 왕실 조상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세운 사당)를 세우기까지 하였다. 신사는 광복 1년 후인 1946년에 철거되었다.

달성토성 안에 있는 대구향토역사관을 방문하면, 대구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달성토성의 옛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대구 수성구 옥수동에 전승하는 옥수농악

또 하나의 문화재... 소중한 자연과 전통문화

문화재 중에는 사적, 자연유산, 무형문화재도 있다.

달성토성 외에 대구 유명 사적지로는 사적 제262호인 대구시 동구 불로동 고분군이 있다. 5세기경에 조성된 수십 기의 크고 작은 무덤들이 있는 곳이다.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은 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데, 대구에 있는 자연유산에는 천연기념물 제1호인 도동 측백나무 숲 외에 달성군 비슬산 암괴류가 있다. 암괴류란 큰 자갈 또는 암석 덩어리들이 한꺼번에 산의 경사면을 따라 골짜기나 평지로 흘러내리면서 쌓인 것을 말한다. 특이하게도 이 암괴류는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예로부터 전해 오는 연극, 무용, 음악, 공예기술 및 놀이 등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대구시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17개인데, 전통음악부터 전통공예품을 만드는 기술까지 다양하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는 수성구의 고산농악이다. 고산농악은 예로부터 이 마을에서 정월 대보름 때 마을 제사를 지내는 한 과정으로 행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2호는 서구 비산동 지역에서 전해 오는 날피북춤이다. 옛날 이 동네 사람들이 지방관리의 순직을 추모하기 위해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제사를 지낸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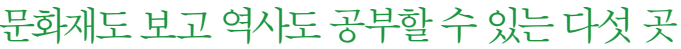
이 외에 대구의 무형문화재에는 옥수농악(대구시 수성구), 천왕메기(대구시 서구, 음력 1월에 마을의 평화와 복을 비는 전통행사), 농사를 지으며 부르던 전통노래인 공산농요(대구시 동구)와 하빈들소리(대구시 달성군)가 있다.



대구
지식플러스

**오래된 학교 건물도
문화재가 될 수 있다!**

문화재 중에서 근대에 세워진 건물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 대구에는 11개의 국가등록문화재가 있는데 1922년 민족계몽운동을 위해 세워진 조양회관, 1923년 설립된 대구사범학교(지금의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옛 본관과 강당, 1930년대에 세워진 역 건물인 동촌역과 반야월역, 동산병원 구관 건물 등이다.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지정한 문화재는 대구 곳곳에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에도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찾아 지역별 문화재 검색을 하면 된다. 대구 지역 문화재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나 보자.



국채보상운동기념관 & 서상돈 고택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대구 도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안에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에 제1전시실이, 1층에 제2전시실이 있고, 2층에는 기획전시실이 있다. 기념공원에도 볼 것이 많다. 매년 1월 1일 새해맞이 타종 행사 때 치는 달구벌대종이 있다. 또 꽃과 나무가 잘 가꾸진 산책로를 따라 ‘명언 순례의 오솔길’이 나 있다. 국채보상운동을 처음 제안하였고 이 운동을 이끌었던 서상돈은 당시 대구 지역 경제계, 종교계 지도자였다. 대구시 중구 계산동에 서상돈의 고택이 복원되어 있다.

달성토성

대구의 오랜 역사를 대표하는 공간인 달성토성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에서 아주 가깝다. 토성 내에는 동상과 비석 등 대구와 경북의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조각품이 있다. 달성토성 안에 있는 대구향토역사관을 방문하면 대구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달성토성의 옛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전시물 중엔 국제보상운동을 알리는 신문 자료, 대구 시내의 옛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있다.



동화사

1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인 동화사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곳이다. 동화사는 중심 건물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암자를 거느린 큰 절이다. 동화사에 있는 보물 문화재를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동화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경내 지도를 살펴본 후에 미리 답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동화사에는 보물 문화재 외에 불교 문화관, 세계 최대의 석불인 약사여래 대불이 있다.



국립대구박물관

대구와 경북에서 발굴된 많은 문화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국보 문화재부터 선사시대 유물까지 다양한 전시 유물들을 구경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학습할 수 있다.

경북대학교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과 더불어 대구를 대표하는 박물관이다.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 안에 있는 박물관으로 1959년 문을 열었다. 보물 제335호인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제516호인 대구 무술명오작비, 제997호인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상 등을 소장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대구 지역만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시다.

1900년대 초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할 당시 그 취지를 밝힌 글, 신문 기고, 편지, 영수증, 관련 공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9세기부터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늘려 가던 유럽 열강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부패한 지배층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을 조종해 그 나라의 정부가 엄청난 빚을 지게 만들고 이를 갚지 못하면 주권을 빼앗아 식민지로 만드는 식이었죠.

제국주의의 길로 나선 일본이 조선에 취한 전략도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흥계를 간파한 조선의 민중이 나랏빚을 갚겠다며 일어난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었던 거죠. 이 운동은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시달리던 나라들이 우리의 국채보상운동에 큰 감명을 받아 비슷한 몸짓을 보여준 겁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에서 시작된 평화적 구국 운동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전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특징 중 하나는 신문에 실린 자료들, 여성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이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한 데에는 언론이 지속적인 캠페인을 하며 성금을 모금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컸습니다. 또, 많은 여성들의 편지는 그들의 주체적이고 활발한 참여상을 드러내는 자료들인데요, 대구 남일동의 부인 일곱 명이 주축이 된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의 활약이 그런 경우죠.

이처럼 언론과 여성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당시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들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어느 나라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실천한 증거로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MEMO



3

전시장에 보물이 가득! 경북의 박물관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경상북도에는 소중한 문화재들이 아주 많다. 또 문화재를 보존,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 여럿 있다. 이들 문화재와 박물관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알아보도록 하자.



천마총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금관(왼쪽)
기마인물형 토기(오른쪽)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담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여러 지방 가운데 문화재가 많은 고장 중 하나다. 신라와 가야의 역사가 깃든 지역이고, 또 조선시대에 경상북도에서 유교문화가 발전한 것이 큰 이유이다.

경상북도에 있는 국가 지정 국보는 52점, 보물은 260점이나 된다. 이 중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이다. 그다음은 조선시대에 유교문화가 발전했던 도시인 안동이다.

경주에는 많은 국보, 보물 등을 소장하고 있는 큰 박물관이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이다. 이곳엔 신라역사관 등 5개의 상설전시장이 있는데, 꼼꼼하게 유물을 살펴보려면 하루가 부족할 정도이다.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소장 유물 중 국보·보물을 검색하면 38개의 문화재가 나온다. 이 중에서 5개의 문화재를 구경해 보자.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나라 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종이다. 신라 제35대 왕인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하여 771년 그의 아들인 혜공왕 때 완성하였다. 그래서 종 이름에 성덕대왕 이름이 붙었다. 높이가 365.8cm인 종의 꼭대기에는 용뉴(종 꼭대기 부분의 장식)와 음통이 있다. 종 표면에는 당초무늬, 비천상, 연꽃 문양 등이 양각되어 있다. 화려한 장식과 우아한 형태,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종소리를 내는 종으로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천마총 금관(국보 제188호)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금관 중에서 화려함이 가장 빛나는 금관이다. 높이 32.5cm의 금관으로, 머리에 두르는 넓은 띠 앞면 위에 '山' 자 모양이 3줄, 뒷면에는 사슴뿔 모양이 두 줄로 있는 형태이다. 굵은 옥을 달아 장식하였고, 금실을 꼬아 늘어뜨렸다. 1973년 경주 제155호 고분에서 발굴된 것인데, 발굴 때 천마도(하늘을 나는 말의 그림)가 함께 나와서 이 무덤의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허리띠(국보 제190호)

천마총에서 금관과 함께 출토된 것이다. 허리띠 길이는 125cm, 드리개 길이는 73.5cm이다. 얇은 금으로 만든 과판(띠의 겉에 달아서 꾸미는 낱알의 쇠붙이) 44개, 띠 고리와 띠고리 끝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에 찻던 허리띠가 아니라, 천마총에 묻힌 왕 또는 귀족의 장례식에 맞춰 무덤에 함께 묻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기마인물형 토기(국보 제275호)

말을 탄 무사 모양의 토기로, 고대 금관가야 지방인 경상남도 김해에서 출토된 것이다. 높이 23.2cm로 말의 등에는 뿔 모양의 2개 잔이 좌우 대칭으로 있다. 말의 몸통에는 갑옷이 입혀져 있다. 말 위엔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무사가 앉아 있는데, 오른손에는 창을,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다. 세부 묘사가 매우 빼어난 문화재이다.

서수 모양 주전자(보물 제636호)

경주시에 있는 미추왕릉 지구에서 출토된 주전자이다. 서수는 복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을 가리킨다. 몸통은 거북, 머리와 꼬리는 용의 형상을 한 동물이 굽다리 위에 올려져 있다. 몸통 속은 비어 있고, 등에는 갈매기 모양의 주입구가 있다.



고려 희종 때 장양수가 받은 흥패

경상북도엔
이런 국보도 있다!

국보 중엔 건축물, 조각품이 많다. 그렇지만 역사적 가치가 큰 그림, 문서, 책이 국보로 지정된 경우도 많다. 그중 경상북도에 있는 국보 3개를 구경해 보자.

안향 초상(국보 제111호)

경상북도 영주시의 소수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학을 보급한 고려 시대 후기의 학자 안향의 초상화이다. 고려시대 초상화의 화풍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징비록(국보 제132호)

조선 중기의 문신인 류성룡이 임진왜란 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고 군사, 외교 분야에서 헌신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난 류성룡이 조선에 다시는 임진왜란 같은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쟁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다.

장양수 흥패(국보 제181호)

흥패란 국가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한 합격 증명서이다. 경북 울진군에서 발견된 이 문서는 고려 희종 1년(1205)에 과거에 합격한 장양수에게 내린 흥패이다. 가로 93.5cm, 세로 45.2cm로 황색 마지 두루마리에 쓰여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흥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료이다.



울진군 봉평신라비전시관

논에 박혀 있던 돌이 국보가 되었다

1988년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 2리 어느 논에서 한 농부가 포클레인으로 논에 박혀 있는 큰 돌을 캐내는 공사를 벌였다. 농부는 캐낸 돌을 논두렁에 그냥 두었다. 그 사이 비가 몇 번 내려 돌에 붙어있던 흙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돌에 새겨진 한자가 드러났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우연히 돌에 새겨진 한자를 발견해 면사무소에 연락하였고, 면사무소에선 경상북도 도청에 연락해 전문가들이 와서 돌을 조사했다. 바로 울진 봉평신라비가 발견되는 순간이었다.

글씨는 비석 한쪽 면에만 새겨져 있었는데, 글자 수는 400자 정도였다. 내용은 울진 지방이 신라의 영토로 들어갈 무렵 주민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나자, 신라에서 6부 회의를 열고 저항운동을 진압한 후에 이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었다. 신라가 경주 동북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건립한 비석으로, 범흥왕 시대인 524년경에 세워진 비석이었다. 학자들은 이 내용을 통해 당시 신라의 상황과 여러 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길이가 204cm, 아래 폭 54.5cm인 이 비석은 오랫동안 논에 방치되어 일부분이 파손된 상태지만 역사적으로 가치가 큰 것이어서 국보 제242호로 지정되었다. 울진군에 이 비석의 전시관이 있다.





고령 대가야박물관



경상북도엔 또
어떤 박물관이 있을까?

경상북도에 있는 여러 시와 군에는 그 지방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 세운 박물관들이 있다. 이 중 널리 알려진 박물관 두 곳과 특별한 주제를 가진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자.

고령 대가야박물관

고령군은 삼국시대에 대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던 곳이다. 이 역사를 기념하는 뜻에서 고령군에는 대가야읍이라는 이름의 행정구역과 2005년에 개관한 대가야박물관이 있다. 국내 최초로 확인된 순장 무덤으로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가운데 최대 규모인 44호 무덤을 복원해 재현한 ‘대가야왕릉전시관’ 외에 대가야를 중심으로 고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 전시하는 ‘대가야역사관’, 그리고 대가야 출신으로 가야금을 만든 음악가 우륵을 기념하는 ‘우륵박물관’이 있다.

안동 유교문화박물관 등

안동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이다. 유교 문화가 크게 발전한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슬로건에 걸맞게 안동시에는 유교 역사와 문화재를 잘 간직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다. 국내 유일의 유교 전문 박물관인 유교문화박물관으로, 유교문화 관련 전시물과 프로그램이 풍부하다.

이 외에도 안동에는 국내 최초로 유물 없이 디지털 콘텐츠(디지털 유물)로만 전시 내용을 채운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안동소주·



포항 국립등대박물관



전통음식박물관, 하회세계탈박물관 등 다채로운 콘텐츠의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한마디로 안동은 ‘박물관 도시’라 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 특색 있는 박물관

1985년에 개관한 포항시의 국립등대박물관은 등대를 비롯한 항로 표지 시설과 장비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조선시대에 ‘경사스런 소식을 듣는다’는 뜻을 가진 지명으로 인해 과거를 보러 가는 응시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갯길로 여겨진 문경새재의 고장답게 문경에는 길을 주제로 하는 옛길박물관이 있다. 또 과거 석탄의 대량 생산지였던 사실을 기념하는 석탄박물관도 있다.

경북의 특색 있는 박물관으로는 상주시의 자전거박물관을 빼놓을 수 없다. 평탄한 지형인 상주시는 타 지역에 비해 자전거 이용자가 훨씬 많은 도시인데, 이런 생활전통을 기념하여 세운 박물관이다.

이 외에 인삼이 유명한 영주에는 인삼박물관이, 청도에는 농기구박물관이, 김천에는 세계도자기박물관이 있다. 울릉도에도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박물관이 있으니, 독도박물관이 그것이다.

